

광주FC 초대 감독 최만희 브라질 통신원 관전평

# “영건들 자신감 부족...세계 축구 전술 변화 읽어라”



## 체력·기술 체계화 시급...10년 내다보고 유소년 길러야

한국은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1무2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이는 세계 축구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스페인이다. 2연패를 장담했던 스페인은 원톱에 의존하다 조별리그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 브라질월드컵에서는 원톱 대신 공격수를 2~3명 기용하는 투톱, 스트라이커 위력을 떨치고 있다. 공격수가 많아 화끈한 골 퍼레이드를 펼

칠 수 있어 볼거리가 많다. 후반에서 전방으로 공을 직접 빠르게 연결하는 ‘짜릿한 역습’이 재미를 더했다. 한국도 세계 축구의 새로운 전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신감 부족이다. 젊은 선수들로 구성되면서 예측했던 일이다.

1차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는 경쟁력 있는 경기를 펼쳤지만, 2차전 알제리전에서는 제대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반 실점 이후 무기력해졌

다. 경험 부족에 위기 돌파를 이끌 리더가 없었다.

3차전 벨기에와의 경기에서는 상대 선수가 한 명 퇴장했는데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우리가 유리할 때 어떤 전술을 쓸지 준비가 부족했다.

선수 기용에서도 아쉬움이 있었다. 물론 선수들의 컨디션을 몰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며, 자신의 전술을 가장 잘 펼칠 선수를 기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럽다. 16강은 좌절됐지만 본선에 진출한 것만도 대단한 일이다. 한

국은 FIFA 랭킹 57위다. 57위인 한국이 32개국이 뛰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만도 의미가 크다.

체력과 기술에서 남미·유럽·아프리카에 비해 많이 뒤졌다. 체력과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체계화해야 한다. 독일·프랑스의 경우 유소년을 키워 10년 후를 대비한다.

본인들이 뛰고 있는 유럽 무대와 월드컵 무대하고 차원이 다른 부분이 많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한 진지한 월드컵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선수들은 각각의 팀에 더 녹아날 수 있어

야 한다. 유럽에 나가서 팀에 뛰지 못하고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 진출할 때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았으면 한다.

또 K리그를 살려야 한다. 브라질 현지에서 보고 느낀 게 축구 문화다. 자신 응원하는 경기 아니더라도 7만명이 몰린다. K리그도 많이 찾아야 한다. 물론 K리그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한다.

국내리그에 대한 관심없이 월드컵만 보는 시선들이 안타깝기도 하다. K리그가 기본, 바탕이 되어서 더 발전 된 한국축구를 만들어야 한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인 K리그를 적극 서포트하자.

# “향후 거취, 나의 길 찾겠다”

## 월드컵 ‘무승’ 탈락 홍명보 감독 사퇴여부 관심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에 도전했지만 ‘무승 행진’ 속에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삼킨 홍명보(45) 축구 대표팀 감독의 향후 거취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홍명보호는 27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열린 벨기에와의 대회 H조 3차전에서 0-1로 패하면서 16강 진출의 마지막 희망을 살려내지 못했다.

이로써 홍명보호는 1무2패(승점 1)의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벨기에(승점 9), 알제리(승점 4), 러시아(승점 2)에 이어 H조 꼴찌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한 사령탑들이 졸출이 사퇴 선언을 내놓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의 거취도 조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런 가운데 홍명보 감독도 “내가 생각해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내 전적 사퇴 의사도 있음을 내비쳤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6월 24일 홍명보 감독을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

2009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의 업적을 쌓은 홍 감독은 이듬해인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는 U-21 대표팀을 이끌고 동메달을 따내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선수 시절 풍부한 대표 경력과 선수를 장악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앞세워 가장 유력한 대표팀 감독 후보로 떠오른 홍 감독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첫 동메달의 기적을 일궈내며 마침내 ‘월드컵 사령탑’ 자리에 앉았다.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 이후 “축구협회에서 2018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려고 했지만 스스로 자세가 느껴질 것 같아 2년 계약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표팀 지휘봉에 강한 책임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홍 감독의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아시안컵 때까지로 조정됐다.

강한 책임감 속에 월드컵 준비에 나선 홍 감독은 월드컵 직전까지 16차례 A매치를 치러 5승3무8패의 씩씩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결전의 땅’ 브라질로 향했다.

국민적 기대 속에 월드컵 본선에 나섰지만 홍명보호는 팬들의 눈높이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했다.

러시아와의 1차전에서 ‘지지 않는 경기’로 다소 답답한 경기를 펼쳐 1무를 따낸 대표팀은 알제리와의 2차전에 ‘올인’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철저히 한국의 단점을 파악하고 나선 알제리에 맹폭을 당하며 2-4로 참패를 당했다.

이미 자력으로 16강 진출이 어려워진 홍명보호는 1.5군으로 나선 벨기에와 맞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 했지만 의욕만 앞섰을 뿐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갈포’로 0-1 패배를 당하며 조별리그 탈락을 확정했다.

특히 대회 기간에 부진했던 박주영(아스날)의 선발 출전을 고집하고 변화없는 스쿼드로 단조로운 경기를 치른 홍명보호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어느새 기대감에서 분노로 바뀌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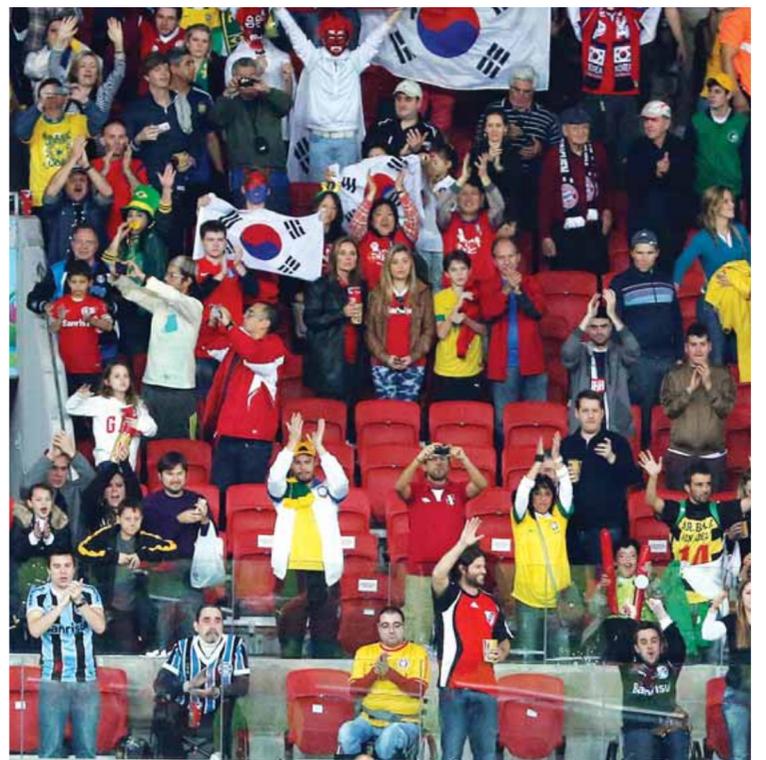
홍 감독은 벨기에전이 끝나고 난 뒤 향후 거취를 묻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웃음을 지으며 “잘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특히 팬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는 “나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며 “내가 생각해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겠다”고 단호한 태도를 전했다.

여론이 사퇴하라는 분위기로 바뀐다고 해도 그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그만둘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홍명보 감독



지난 23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베이라하우 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알제리 경기에서 붉은 악마들이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짜 축제는 K리그다”

## 클럽 시스템이 축구 발전 기반

### 각 구단만의 색 만들어가야

브라질의 유명 박물관에 붙은 한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화제다.

“한국인 여러분 이번주에는 MASP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승점 1. H조 최하위로 쓸쓸하게 축제의 현장에서 일찍 짐을 싸게 된 한국. 패자를 위로(?)하는 재치 있는 문구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축구에 대한 브라질의 사랑과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축구는 삶이었다.

월드컵을 뜨겁게 만들었던 붉은 악마의 함성은 멈췄다. 응원전에 나섰던 붉은 악마 원정대는 한국 시간으로 29일 오전 3시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광주일보 통신원으로 현지 분위기를 전해줬던 정민영·전민성 씨는 “브라질의 현지 축구사랑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인회 분들과 함께 응원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정도 같이 나왔다”고 지난 10여 일의 시간을 얘기했다.

물론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다. 진한 아쉬움이 남지만 그들은 진짜 축구 축제는 지금부터라고 말한다. 4년 뒤 흥겨운 축제를 위해 K리그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클럽 시스템이 발전의 기반이 된다. 같은 응원팀을 지지하는 축구팬들은 쉽게 다가가서 친해질 수 있다. 벨기에전 마지막 경기 끝난 뒤 코리치앙스 팀을 지지하는 팬들이 함께 부르는 응원가는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오랜 역사를 지닌 해외 클럽에 비하면 아직은 짧

은 역사와 관심이 K리그가 앞으로 채워가야 하는 부분이다.

“브라질이나 해외에는 200년 가까이 존재하는 클럽들이 존재하고 가족대대로 그 팀을 지지하기에 특유의 전통이 존재한다. 우리 축구 클럽 시스템은 이제 겨우 30년이 넘어간다. 우리는 전통을 만들어 가야하는 단계다.”

K리그의 가능성을 알리고 각 구단이 인내심을 가지고 클럽만의 색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K리그만의 이야기자한 맛이 있다. 사람들에게 이를 알린다면 K리그도 발전하고 한국축구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유의 색을 내기 위해서 구단들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북 최강희 감독이 ‘다공(다치고 공격)’을 통해 팀을 발전시킨 것은 좋은 예가 된다.”

K리그 발전이 발판이 된 월드컵 축제를 꿈꾸는 이들. 4년 뒤 후회없는 플레이를 보는 게 이들의 바람이다.

“태극전사들이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는 플레이를 하면 좋겠다. 선수단은 서로서도 잘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중심에서 잡아주는 리더가 없던 것 같았다. 어린 선수들이 많이 부족했던 게 많았던 것 같다.”

4년 뒤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공격수 손흥민.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이번에 부담되는 게 많아서인지 완벽하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다음 월드컵에서는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근호 등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활약도 반가웠다. K리그들이 다음 무대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해주기를 바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